

불자 세상보기



이수경
동국대 불교이동교육학과 교수

인천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울음을 그치지 않은 22개월 남아의 입에 휴지를 넣는 어린이집 원장, 한글공부와 선긋기를 제대로 못해 훈계차원에서 주먹으로 유아를 때린 보육교사의 태도는 상식을 초월한 아동학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연령이 어린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은 아동의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문제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4년제~3년제 대학의 유아·아동관련학과 졸업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립 기관에서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사설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수업만 받고 보육실습을 거쳐 2,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더욱 교사자질에 대한 많은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장경험과 승급교육을 통해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자의 60.9%가 사이버대학과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양성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경우, 교사자질 양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와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온라인 자격증제도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심도가 높게 논의되어야 한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화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 잘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자신과 아이들에게 좀 더 이해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재교육으로 명상 수행으로 진행되는 교사인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교사들은 마음

속에 내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꾸준히 자기 수행 정진해야 하며,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기쁨, 행복, 자유, 선한 에너지, 웃음, 친절, 배려, 사랑, 자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 사랑, 자비를 키우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 영·유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교사도 자신의 근무지인 어린이집을 생각할 때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탁났한 스님은 마음 밭에 있는 연민과 자비심이라는 '꽃에 물주기'를 통해서 분노, 질투, 잘못된 인식이라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흡 알아차리기 수행이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며,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지닌 파산한 능력과 상상력을 발견하고, 아동들이 가진 재능과 상상력을 더해 교실을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알아차림 명상은 교사들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때 알아차림 명상 수행은 마음속의 즐거움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기쁨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 알아차림 명상으로 마음속에 자유와 자비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알아차림 명상을 필수적인 인성교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알아차림이 스트레스와 불안, 적대감 등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평화, 자신감,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간단한 알아차림 호흡명상과 걷기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마음 속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지난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특수분야교원직인수로 실시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명상으로 마음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간단한 알아차림 호흡명상, 걷기명상과 자연명상과 함께하는 예술놀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 속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승려복지 원만 시행 기대

조계종이 종단 핵심과제인 '승려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입원 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대상은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종단 스님에게로 수혜가 확대됐고 지원 인원은 8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오는 4월부터 지원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률은 95% 정도로, 이 중 50~60%가 교구나 사찰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이뤄진다. 현재 종단 스

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8%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려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가입율을 높이고 노후 안정제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승보공양 등을 통해 모은 승려복지기금은 20억 원 가량. 하지만 올해 예산에만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승보공양운동을 통해 정기적 후원자가 15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8000여 스님들의 복지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운동이 실행과 접목해 추진될 수 있도록 출가열반주간과 백중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있는 모금 캠페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했던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점은 승려복지의 중요한 의미이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단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사찰 합동차례와 바뀌는 명절 문화

젊은 세대의 맞벌이 문화와 명절을 여가 생활로 즐기는 문화가 겹치며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용적인 것인지 옛 것의 흥대인지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지역 사찰에서는 설 합동차례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서울 조계사의 경우 설 합동차례 동참가정이 2012년 719가구에서 2013년 776가구, 2014년 847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도 2012년 2253가구에서 2013년 2456가구, 2014년 2667가구로 증가했다.

봉은사의 경우 늘어난 합동차례 인원으로 2014년부터는 설 당일날 3차례 걸쳐 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 역시 "차례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풍속도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경우 천태종 삼광사는 2013년 극락전 불사 이후 설 합동차례 인원이 매년 40%가량 늘고 있다. 조상 위패를 모신 원찰 개념이 강해지며 귀향객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찰 차례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나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고 소외받는 이를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사찰이 명절 차례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찰은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 역시 단순히 합동차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가와 재가, 가족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새로운 명절 신형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차례와 함께 통알과 성불도 놀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언대

이기영 박사의 '보살불교' 거듭나길

한불연 '신불운동'에 환영



김광렬
前성서여중 교장

40년을 맞은 한국 불교연구원의 신불교운동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창립자인 불연 이기영 박사와의 인연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에서 교사불자회 연수가 진행됐는데 그때 인연을 처음 맺었다. 당시 불연 이기영 박사는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야 불자 의식이 바뀐다'며 구도회 창립을 하였다. 이후 교사불자회를 중심으로 구도회가 결성돼 매주 토요일 법회를 하고 공동수행을 해오는 등 신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당시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예산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다. 구도회 또한 고령화로 인해 예전의 활동력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일 수록, 오래된 조직일수록 저력이 있기 마련이다. 구도회를 비롯해 문수회 등 봉사조직을 확충하고 청년불자들을 영입한다면 활동력이 제고될 것이다.

수십년간 수행을 해보니 재가불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장소다. 출가자들은 사찰이라는 수행장소가 있지만 재가자들은 딱히 걸집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연구원이 유마정사 등 수행장소를 열린공간으로 전환한다면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는 기본불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신불교운동을 계기로 재가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때인 것이다.

"500억 혈세들여 남는건 자연훼손 뿐"

케이블가 설치 논란



이병인
조계종 환경위 부위원장

울산시와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재추진 사업은 지역발전이란 환상을 내세워 자연보호지역을 개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 신불산은 자연공원이면서 백두대간 낙동정맥이 지나가는 곳이다. 2개의 보호지가 겹치는 지역이며 케이블카 노선의 중간지주와 보조지주가 들어설 구간의 녹지자연도는 8.9 등급으로 환경법 기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를 개발이 가능한 7등급으로 축소 평가해버렸다. 자본 논리를 앞세워 사업당사자와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이미 신불산 정상은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정상 옆에는 습지가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무분별한 자연훼손의 본보기가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신불산 지역은 강한 바람과 돌풍으로 개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일부 구간은 산림 및 소방행사가 운행하지 않을 정도다.

하루 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 및 경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이 진행된다면 부실한 개발 논리가 날아가 밝혀질 것이다.

지자체는 관광수익을 내세우고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중요단체는 환경보존을 주장한다. 타협점은 기존 등산로를 정비해서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으로 바꾸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공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김홍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인간의 김홍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